

(Jonah 2:1-10; 4:1-11; Luke 15:25-32; 2 Peter 3:3-9)

We live in a world in which it is much easier to hate than to love. We see hatred expressed in many different ways in our news bulletins on the TV each night and we see it as we go about our own life day by day. We each have a choice whether to hate, or at least have contempt for, someone or whether to love them. Admittedly, there are people in this world who are harder to love – and the cruel and wicked Ninevites, the people who lived in the capital city of Assyria, in Jonah's day undoubtedly fell into this category – but that doesn't give us permission to hate them. Some people hate people they don't even know much about. They just hate them on principle – perhaps because they belong to a certain ethnic group or a certain religious group or because they have certain political affiliations or have adopted a certain lifestyle. We all have to choose whether we are going to reflect the hatred of a fallen human race or whether we are going to reflect the love of a redeeming God – a God who is mighty to save!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TV 방송의 뉴스 단신을 보면 증오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어 있으며, 매일 바빠 살아가면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 각자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경멸하며 살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건대, 이 세상에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 요나 시대에 앓수르의 수도에 살았던 잔인하고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 범주에 속했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그저 원칙에 근거해 그들을 미워합니다 – 아마도 그들이 어떤 특정 인종집단이나 종교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졌거나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을 채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타락한 인류의 증오를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하신 하나님 –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The book of Jonah is one of the better known of the Minor Prophets but perhaps the least understood. Many people look endlessly for clever theological explanations of the remarkable events in the story, when its primary message is quite clear. Jonah is about how merciful and compassionate God is to all his creatures, and how he hates any of them to come under his judgment against sin. The commentator Campbell Morgan once said, "Men have been looking so hard at the great fish in the book of Jonah that they have failed to see the great God".

요나서는 소선지서 중 보다 잘 알려졌지만 아마도 가장 이해되지 않는 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의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보다 명석한 신학적 설명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 그 주된 메시지는 꽤 명확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자애로우신지, 그리고 그 피조물 중 누구라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하에 놓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해설가 캠벨 모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서의 큰 물고기를 너무나 집중해 보느라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asking him to preach against Nineveh, the largest city of the Assyrian Empire. It was famous for its brutality and violence, which are depicted graphically by the prophecies in the book of Nahum, which we will look at next Sunday. Instead of obeying the word of the Lord, Jonah ran away from the Lord. He fled by ship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arshish, on the coast of what we now know as Spain. He was heading over 2,000 miles in the opposite direction! His journey, however, showed the futility of trying to hide from God. God acted decisively to bring Jonah back to obedience, and to an understanding of God's mercy. The Lord sent a great wind which caused such a violent storm that the ship threatened to break up.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요나에게 앓수르 제국의 가장 큰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그 잔인함과 폭력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나훔서의 예언들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났습니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배로 도망쳐 지금은 스페인으로 알려진 곳의 해안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2,000 마일 이상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순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기 위해 단호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어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의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Jonah 2:1-10; 4:1-11; Luke 15:25-32; 2 Peter 3:3-9)

Ironically, it was the pagan sailors who were concerned for one another's welfare. During the violent storm, they prayed, threw cargo overboard and cast lots to save one another. All the while, Jonah slept below deck, oblivious to the trouble he had caused for everyone. When they finally recognised Jonah as the cause of the peril he was thrown into the sea. The storm subsided and God provided a great fish to swallow the wayward prophet who had refused to obey his word. In the fish, Jonah was as good as dead. He had sunk to "the depths of the grave", but God graciously "brought (his) life up from the pit" (2:2,6). The pattern of death and resurrection conveyed in Jonah's prayer was used by Jesus when he spoke of the sign of Jonah. Jesus said that this was the only sign he would give to a sinful and adulterous generation (Matthew 12:38-42).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안위를 걱정했던 것은 이방인 선원들이었습니다. 거친 폭풍이 치는 동안, 그들은 기도하고, 화물을 배 밖으로 던지고 서로를 구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내 요나는 그가 모두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배 아래층에 내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원들이 그 재앙의 원인이 요나임을 알았을 때 그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다루기 힘든 선지자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무덤과 같은 곳"까지 가라앉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움으로 "그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2:2, 6). 요나의 기도에서 전해진 죽음과 부활의 패턴은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게 줄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38-42).

Jonah experienced the marvels of a rediscovery of God's grace while in the belly of the great fish and repented of his sin with one of the most moving and genuine prayers in all Scripture. Perhaps only David's great psalm (Psalm 51) of repentance can be said to rival it. In the light of his salvation, Jonah affirmed his trust in God as the God of grace, unlike the idols which so many people cling to. He affirmed that salvation comes from God. The brilliance of these affirmations served to highlight Jonah's extreme self-centredness. His attitude had not really changed. He was delighted to be saved from his own sin, but was angry at the thought of others being saved from theirs! He was totally out of step with the God of grace whom he served. And yet in chapter 3, God's word came to Jonah a second time (3:1). Despite his bad attitude, God persisted with Jonah. This time Jonah obeyed and went to Nineveh. There he proclaimed what he no doubt hoped and wished would be Nineveh's destruction: "Forty more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urned". However, the Ninevites believed Jonah's word of warning and Jonah's worst fears were realised. In one of the greatest revivals of all time, the wicked Ninevites were saved.

요나는 큰 물고기의 배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진정한 기도들 중 하나로 그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회개를 담은 위대한 시편 (시편 51)만이 그에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관점에서,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우상들과 달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확인의 탁월함은 요나의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를 드러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요나의 태도는 실제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생각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겼던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전혀 보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3:1). 나쁜 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니느웨의 파멸이 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의 말을 믿었고 요나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 가장 놀라운 회복 가운데 하나로,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다.

The response of the King of Nineveh is a model response of repentance. First, he put aside his authority, acknowledging the greater authority of Yahweh, the God of Israel (3:5). Secondly, he covered himself in sackcloth – a sign of sorrow and grief over his sin (3:6). Thirdly, he issued a decree, calling on his subjects to fast and seek God (3:7-8). And finally, he acknowledged that God is sovereign and may forgive their sin, but is not bound to. He is a God of righteous anger, and the Ninevites had angered him (1:2) – but he is also a God of compassion. As the final verse of chapter 3 indicates, God's compassion won out and he did not destroy the city as he had threatened to do.

(Jonah 2:1-10; 4:1-11; Luke 15:25-32; 2 Peter 3:3-9)

니느웨 왕의 반응은 회개의 모범이 되는 응답입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보다 큰 권위를 인정합니다 (3:5). 둘째로,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비탄의 표식인 굵은 베 옷을 입었습니다 (3:6). 셋째,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명했습니다 (3:7-8).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1:2) – 그러나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3 장의 마지막 절이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자비가 승리했고 위협했던 것처럼 니느웨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But as chapter 4 begins we are told that “Jonah was greatly displeased and became angry” (4:1). Jonah was unhappy about God’s compassion – though not his compassion in itself, but the scope of his compassion. He was happy to be the recipient of God’s kindness, but he didn’t want that kindness shown to the wicked. He could easily have fitted into the Pharisaic party in Jesus’ day who had to be reminded: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Mark 2:17). In order to drive home the petulance of Jonah’s attitude, God caused a plant to grow up and shade him, in the place where Jonah had gone out and sat down east of the city of Nineveh. Jonah was happy about the plant, but when God caused a worm to kill the plant, Jonah was outraged. He didn’t want to live in a world where such injustice could occur. God now had him where he wanted him! He asked Jonah why he was so concerned about a vine which he didn’t plant or look after, which was only there for a short while and was then gone. He asked him why, if his anger over such an insignificant plant is justified, God’s concern over the great city of Nineveh was not! There is, or course, no answer. God has made his point powerfully and Jonah was silenced. The book comes to an abrupt but powerful end. 하지만 4 장이 시작하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1)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불만이었습니다 – 비록 자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비의 정도에 불만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은 좋았지만, 그 호의가 사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17)는 말씀을 상기시켜주어야 했던 바리새인 그룹에 쉽게 들어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태도가 얼마나 심술궂은 것인지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있던 곳에 그를 위해 넝쿨을 자라게 해 그들이 지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넝쿨에 크게 만족하였지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넝쿨을 갹아먹게 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부당함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원하시는 곳에 요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가 심지도 않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잠시 거기 있다가 금새 말라버린 그 막 넝쿨을 것처럼 아낀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것처럼 보잘것없는 넝쿨을 두고 그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요나는 이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보이셨고 요나는 침묵했습니다. 요나서는 그리고 갑작스럽지만 강렬하게 끝이 납니다.

Chapter 4 is the climax of the book of Jonah and verse 11, the final verse, is the punchline. God is speaking through Jonah and his story to his own people, the people of Israel, and to the new Israel, the New Testament church of Jesus Christ. He is a God who is compassionate and mighty to save – mighty to save not just the Jews but people from throughout the world. This is a missionary book and this chapter is about God’s heart for the world – and he wants you and me to share his heart for the world. Jesus would sooner suffer and die than allow the people he has made die in their sins – and be lost for eternity (cut off from the love and presence of God for eternity). Remember what Jesus said in the parables of the lost sheep and lost coin in Luke 15 – there is rejoicing in heaven,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4 장은 요나서의 절정이며, 그 마지막 절인 11 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 단지 유대인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이는 전도서이며 이 장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하기보다는 – 그리하여

(Jonah 2:1-10; 4:1-11; Luke 15:25-32; 2 Peter 3:3-9)

영원히 잃어지기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것) 차라리 고통 받다 죽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 장에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우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 나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What is wrong with Jonah? He should have been happy – but he is unhappy. He had been instrumental in providing the gift of spiritual life to thousands of people – yet he prefers death. He claimed to understand God's grace and mercy, which he himself had experienced – yet he resents God for it and says that he would have preferred wrath and judgment for Ninevah. One thing wrong with Jonah is that he is not reconciled to the will of God even yet. He had been opposed to God's will at the beginning and had run away to Tarshish because of his opposition. God had pursued him and brought him to the point of obedience. He had even rediscovered God's grace while in the belly of the great fish and had repented of his sin. Yet, Jonah's attitude had not really changed. He was still unwilling to see the people of Nineveh saved, and he resented the God of mercy for saving them. We often act the same, even when we are apparently obeying God. We are doing what we think we should be doing, living the kind of life we think a Christian should live. But secretly we are unhappy and even angry with God for making the requirement of us. For this reason some Christians look and act miserable much of the time.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만족했어야 합니다 -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을 선물해 주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죽음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안다고 주장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그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뒤쫓았고 그를 순종으로 이끄셨습니다. 큰 물고기 배 속에 있는 동안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고 그의 죄를 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을 구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조차, 우리는 종종 같은 식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은연중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크리스천들은 많은 시간 불행해 보이며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Second, Jonah had forgotten God's mercy to him. We wonder, "How could Jonah of all people forget God's mercy? And forget it so quickly?" Jonah should have perished inside the great fish. He had renounced God. It would have been understandable if God had renounced him. Yet God had showed him great mercy, first in bringing him to repentance and then in saving him and recommissioning him to preach in Nineveh. Jonah had certainly experienced mercy at the hand of God. But there was the long journey across the desert to Nineveh, and man's memory is often short. Jonah had forgotten God's mercy and was therefore ill-prepared to appreciate it when God showed the same mercy to others, especially to the cruel and ruthless enemies of his people, Israel. We must remember this when we find ourselves wondering somewhat regretfully, why God does not judge someone else for his or her sin. When we do that – as we all do – we are forgetting that we were once where that other person is now, separated from God and without hope, and that we would not be where we are now were it not for God's great mercy to us in Christ.

둘째, 요나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잊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을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게 빨리?"라고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안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자비를 보이셨는데, 첫째 그를 회개케 하셨고 그를 구해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다시 임명하셨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까지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이었고 인간은 기억은 종종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같은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적들에게 그 자비를 보이셨을 때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 우리는

(Jonah 2:1-10; 4:1-11; Luke 15:25-32; 2 Peter 3:3-9)

우리가 한때 다른 사람이 지금 있는 곳, 하나님과 떨어져 소망도 없는 곳에 있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The third reason why Jonah was angry was that he did not know God as well as he thought he did. Undoubtedly he was proud of his knowledge of God. He was a Jew first of all, and the Jews had received God's revelation – they had the Law and the record of God's dealings in history. Moreover, Jonah was a prophet – not just any Jew, but rather one who had studied the Law and who had been commissioned by God to speak on God's behalf. If anybody knew God, surely it was Jonah! But did he? He knew something of God, it is true. But he did not know God well enough to grieve over sin as God grieves over sin, or to rejoice at the repentance of the sinner. Instead, he was like the older son of Jesus' parable, who sulked while the father celebrated and who felt cheated by the prodigal son's return (Luke 15:25-32).  
 요나가 분개한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만큼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우선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 행하심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 그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약간 알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죄를 비통해하시는 만큼 죄에 대해 비통해하거나, 죄인의 회개를 기뻐할 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예수님의 우화에 등장하는 큰 아들과 같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아를 위해 잔치를 열자 못마땅해하고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15:25-32).

Sometimes we find ourselves wishing that the Lord Jesus would return, usher in the final judgment, and take his followers, including us, into heaven, and we are grieved when unbelievers scorn and ridicule us for believing in Christ and his Second Coming. We wish Jesus would come! We cannot understand his delay. This is because we do not understand God well enough. The apostle Peter knew people who thought like this. And so he wrote an explanation to them in his second letter saying, ".....in the last days scoffers will come, scoffing and following their own evil desires. They will say, "Where is this 'coming' he promised? Ever since our fathers died, everything goes on as it has since the beginning of creation".....But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dear friends: With the Lord a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are like a day.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2 Peter 3:3-4, 8-9). Peter explained the delay of God's judgment by God's mercy, saying that Jesus has not yet returned so that all whom God desires to call to faith in him might be born, have the gospel proclaimed to them, and believe. Aren't you glad that Jesus did not return before you were born and believed in him? Well, then, rejoice that his delay makes possible the salvation of countless others – from nations and languages throughout the world. God is a God of judgment. But he is also a God of mercy. He is indeed "a gracious and compassionate God,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4:2). We need to know him as that.  
 때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고 우리를 포함해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소망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두 번째 강림을 믿는 것에 대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비통해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3-4, 8-9).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설명하고, 예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 안의 믿음으로 부르고자 하시는 모두가 태어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주님을 믿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재림이 지연됨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 - 전 세계

(Jonah 2:1-10; 4:1-11; Luke 15:25-32; 2 Peter 3:3-9)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실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4:2).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How great is God's mercy? We have a hymn that says, "There's a wideness in God's mercy, like the wideness of the sea". But even that isn't wide enough, is it? The real measure of the wideness of the mercy of God is that of the outstretched arms of the Lord Jesus Christ as he hung on the cross to die for our salvation – yours and mine! Only his once for all sacrifice is sufficient for the forgiveness of sins. That is the wideness of God's mercy. That is the measure of the length to which the love of God will go.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광활한 하나님의 자비가 바다의 광활함과 같네”. 하지만 그조차 충분히 광활하지 않습니다. 광활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진정한 측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 크게 벌리신 그 두 팔만큼의 넓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단 한번의 희생만이 죄 사함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광활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게 뻗어나갈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How can we, who have known that mercy personally and benefitted from it so undeservedly be less than merciful to others – bo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side the church and those outside the kingdom of God? How can we do less than love them and carry the gospel to them with all the strength and persistence at our disposal? How vastly different this church and our society would be if you and I truly had the heart of God! Ask the Holy Spirit each day to transform and refine you so that you have the heart of God and so choose compassion, choose mercy and choose love.

개인적으로 그러한 자비를 알았고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그 혜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 교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힘과 인내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 교회와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단련시키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자비를 택하고, 은혜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